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11월 뉴스레터 vol. 70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소식 살아생전 준비하는 부모님 인생 기록함 '채비함' 편딩

24%의 기적 당신의 끝은 무엇인가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고인(故人)은 죽지 않는다

채비가 만난 사람들 시니어 재택돌봄용품 전문 그레이몰 이준호 대표

조합소식 채비장례 추모매니저, 종교최고지도자상 수상

채비강좌 '누군가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이야기하다' 후기

살아생전 준비하는 부모님 인생 기록함
‘채비함’을 와디즈에서 펀딩합니다.



채비함은 부모님의 빛나는 인생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을 담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살아생전 유품함이자 웰엔딩 박스입니다.

오픈 알림 신청하시고 한정수량으로 준비된 얼리버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펀딩 보러가기)

<https://www.wadiz.kr/web/wcomingsoon/rwd/163907>

당신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 조합은 최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모한 ‘가치소비 참여형 마케팅’ 사업에 선정됐다. 문자 그대로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기업을 알리고 마케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우리는 이미 운영하고 있던 채비학교 5강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석재 감독이 연출한 <삶이 죽음에게 묻다> 1부와 2부 중 하나를 상영하고 강의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우리 조합이 제작에 참여한 이 다큐멘터리 작품은 1부 ‘죽음에서 멀어지다’, 2부 ‘죽음에 다가가다’로 구성되었다. 1부는 위스테인지축에서, 2부는 위스테인별내에서 각각 상영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 조합원들은 1부와 2부 모두 볼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애석하게도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지는 못했다. 언젠가 이 좋은 작품이 반드시 대중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큐멘터리 1부 ‘죽음에서 멀어지다’에서는 경제 논리에 의해 죽음이 어떻게 밀려나고 애물단지로 전락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제는 도로와 철도를 놓는다고, 토건자본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무덤을 쫓아내고 없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무덤들은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났다. 도시의 값비싼 아파트들은 대부분 묘지 위에 지어졌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에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섰다.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는 양재동 어딘가 외딴 곳에 세워졌다. 기억할 무엇이 없으니 사람들은 더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도 마찬가지로 신세였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원은 부지만 확보한 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사람들은 점점 토건자본과 한편이 돼 가고 있다.

다큐멘터리 2부 ‘죽음에 다가가다’에서는 떨어진 죽음에 다가가야 할 이유와 애도의 방법에 대해 얘기한다. 모의추모식에서 망자를 경험한 조합원, 그림책 공부하는 사람들, 임종대기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의사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경제논리 앞에 여전히 죽음은 속수무책이다.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 임종대기실은 병원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야 하는 병원자본은 죽어야 할 환자를 죽지 못하게 만든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한다면 귀가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한다. 임종기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실은 그런 이유로 많지가 않다. 죽음은 돌봄의 대상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한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2강은 임경희 작가의 ‘그림책으로 죽음 공부하기’로 진행됐다. 공간 채비 작은 방에 10여 명의 수강생이 모여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교사 출신인 임 작가는 전국을 누비며 열정적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죽음은 외면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하고 받아들일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림책이 얼마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림책에는 그림과 글과 메시지가 어우러져 있다. 또한 여백을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3강과 4강을 진행한 나는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 한번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자 마무리이다. 삶과 죽음의 무게는 똑같은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태도일 뿐이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타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돌볼 것인가. 진지한 성찰 속에서만 애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알프레도 코텔라가 쓰고 호르헤 곤살레스가 그린 <끝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 있다. 100살 거북이 니나는 문득 ‘끝이 뭐지?’라는 의문을 떠올린다. 그는 답을 찾아 숲으로 들어간다. 개미, 애벌레, 뱀, 꼬꼬리의 답을 제각각이다. 나는 제비의 답이 제일 마음에 든다. 제비는 “끝은 아마 방향을 바꾸어야 할 순간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죽음은 수많은 방향을 선택했을 삶의 미자막 순간이다.

당신의 끝은 무엇인가?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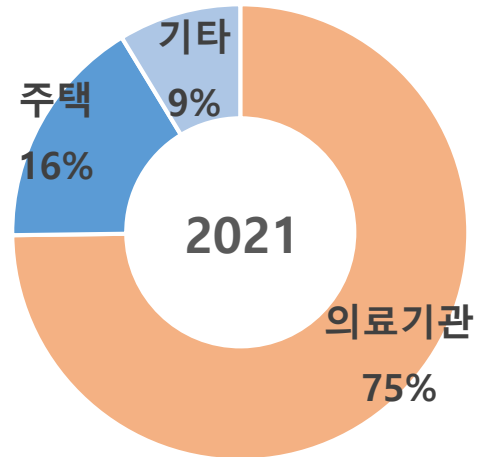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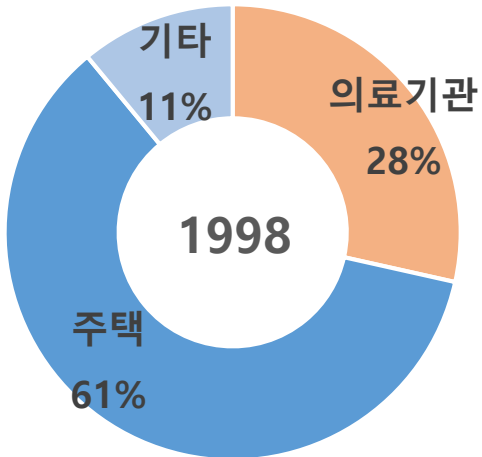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1

사망 장소별 사망자 수
사망자 4명 중 3명은 병원에서 임종 맞아!

사망 장소별 사망자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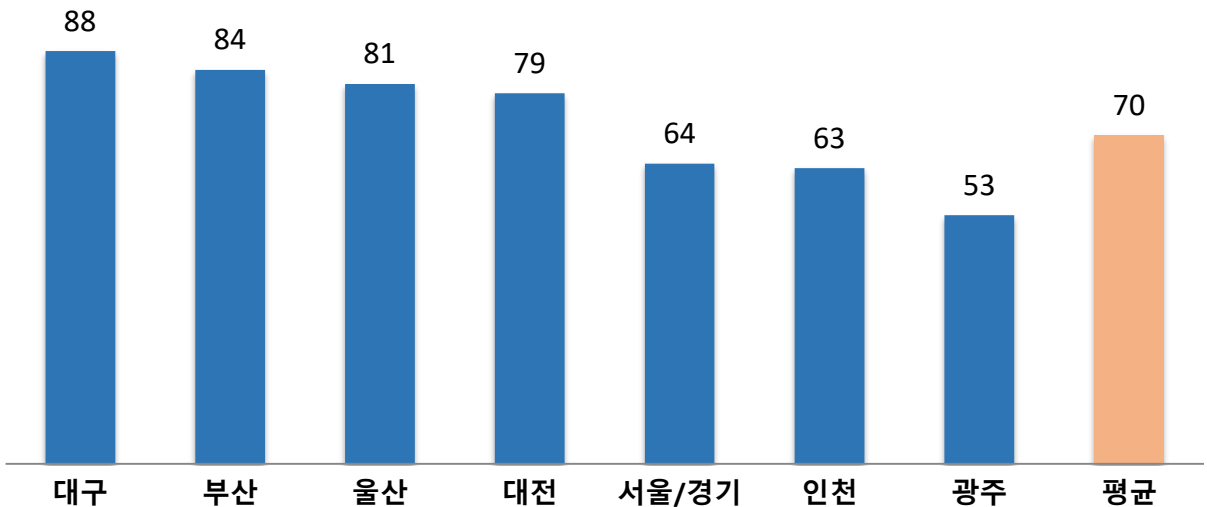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2)

2

병원 장례식장 점유율
수도권, 광역시 장례식장 10곳 중 7은 병원 장례식장!

수도권, 광역시의 병원장례식장 비율 (전체 장례식장 대비, %)



*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2)

고인(故人)은 죽지 않는다



최근에 추모식 장례를 문의하거나, 추모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유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일치되는 동기는 떠나가는 가족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보내고 싶은 바람이다.

어떤 이들은 고인(故人)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추모식을 하고 깊고 풍부한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물론 팩트는 맞는 말이다. 고인의 육체는 죽고, 인식은 없지만 유족과 지인의 마음속에 고인은 여전히 살아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은 고인과의 추억은 단순한 기억 데이터가 아니다.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인은 살고 있다.

유족과 지인은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그를 계속 돌보며 산다. 참 신비한 일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사건은 던져버리는 끝이 아니라 좋은 마무리이어야 한다.

추모식에서 고인의 생애사를 간단히 듣고, 추모영상으로는 장면들을 보고, 가능한 모든 사람이 격식없는 작별인사로 애도를 말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슬픔을 쏟아내는 시간이다. 그래도 되는 안전한 시간이다. 이어서 고인의 유품을 가지고 추억을 나누다 보면 행복했던 추억들이 몽글몽글 떠올라 웃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하고, 우스개소리도 한다.

진행자의 관점에서 이때 신비한 현상을 본다. 사람들을 두르고 있던 무거운 장막이 걷어지는 느낌이 든다. 진행자 개인의 느낌이다. 어쨌든 이후로 유족과 조문인들의 표정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다. 죽음과 상실을 조금은 이겨내고 품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추모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처음에 의도한 장례문화개선에 관한 목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애도와 추모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헤아릴 수 없이 깊다가도, 때로는 한없이 가벼운 애도를 만나기도 한다.

한겨레두레의 채비가 쏘아 올렸지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유족들의 힘이라는 것을 계속 실감한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비즈니스와 관습이라는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 향해 할 수 있을지는 계속 가봐야 알 것 같다. 애도하는 조합원이 있으니... ❀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시니어 재택돌봄용품 전문 그레이몰 이준호 대표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아버지가 입원 하셨어. 뇌졸중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그래도 오른쪽 편마비 때문에 말씀도 어눌해 지셨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고 식사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퇴원하시면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갑자기 찾아온 변화들에 당황스러워 하는 건 모든 가족들이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갑자기 돌보게 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 입원부터 처음 몇 주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며 자주 들여다보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간병은 녹록치 않다.

아버지도 행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부쩍 짜증이 많아진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소를 가기 어려워니 배변사고가 잦아졌다. 산책은 커녕 혼자서 화장실 가시는 것도 불안정한데 집안을 둘러보면 뇌졸중 환자에게겐 사방이 지뢰밭이다. 별로 신경도 안 쓰이던 방문턱부터 방마다 늘어져 있는 멀티탭 전기줄... 특히 낙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화장실만 해도 변기 옆에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버티며 일어나시는데 미끄러질까 불안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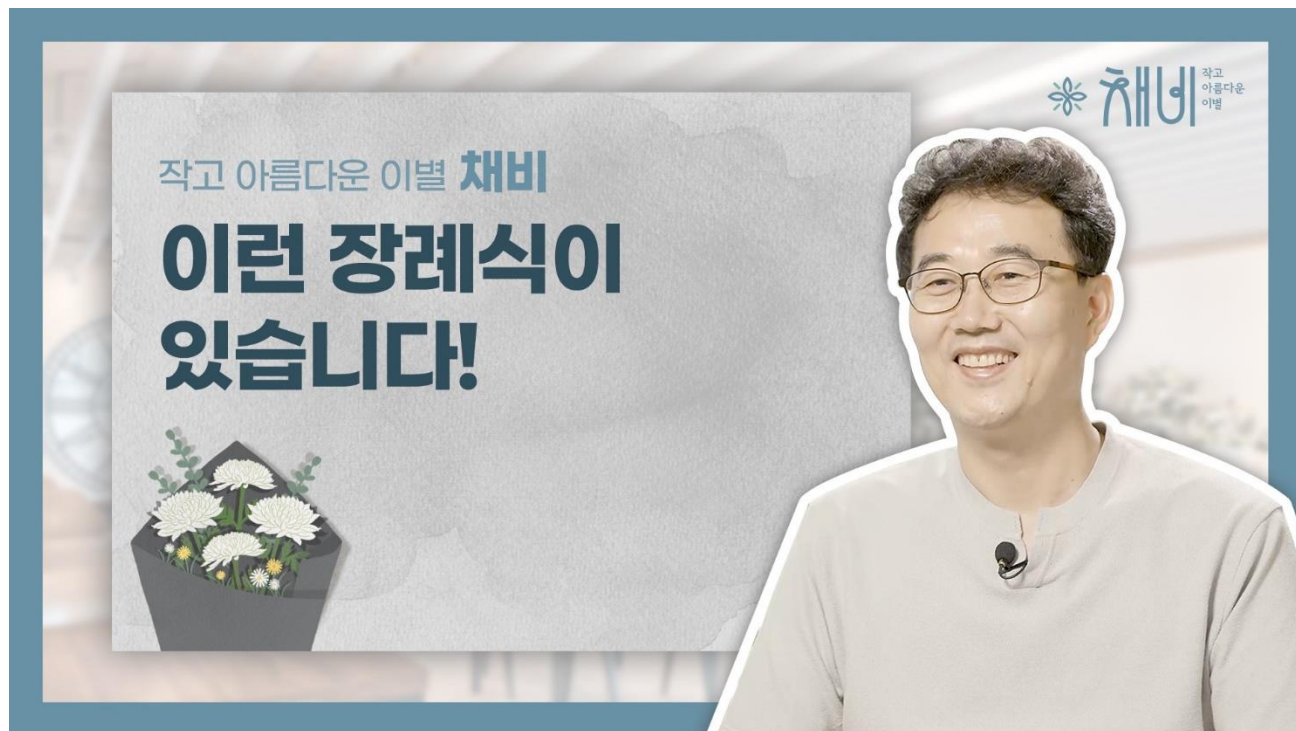
지팡이나 안전손잡이 같은 걸 사야 하는데 어디서 사야 할 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다. 급한 마음에 요양사부터 알아보게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어찌구.... 뭐가 복잡하다.

어느 가족에게나 생길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레이스케일의 이준호 대표는 재택돌봄에 힘들어 하는 가족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시니어 재택돌봄용품 전문 그레이몰(www.greymall.co.kr)을 런칭했다.

이준호 대표는 가격과 상품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고 아직 이커머스가 도입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현대홈쇼핑, 오케이몰 등 커머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준호 대표에게는 '이거다!' 싶은 확신이 들었지만 고착된 보수적인 제도적 문제들과 그레이몰의 아이디어는 격차에 고전하며 생각보다 더딘 성장에 마음 조렸던 시간이 있었지만, 스타트업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시니어커머스 스타트업 선두로 거듭나고 있다.

그레이몰의 특징은 재택돌봄 전문 답게 노인질병과 필요한 제품을 연동하고 모든 제품들을 비교하고 구매하여 집에서 편안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휠체어를 고르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방법 등 다양한 상품정보와 함께 제도, 의료, 금융 및 생활정보 등을 콘텐츠로 자체 제작하여 그레이몰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호 대표는 "처음에 채비를 알게 되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선 콘텐츠부터 만들자고 했어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조 채비와 같은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는 게 행운이죠."라고 이야기한다. 그레이몰은 지난 9월에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전략적 업무 제휴협약(MOU)을 맺고 채비 서비스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힘을 합쳐 시니어 전문 커머스 브랜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https://youtu.be/P62kMT9e4yc?si=PjZGQP6yYsLd426U>

"고령인구 천만 명 시대가 바로 코앞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아직 65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복지용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원 같은 시설보다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시는데, 재택돌봄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훨씬 다양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벽에 박을 필요없이 화장실 변기에 바로 놓아두기만 하면 되는 화장실 안전손잡이나 누워 계신 상태에서도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어르신과 돌보는 보호자를 위한 자세변환용구 같은 제품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 바로 저희 그레이몰이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사회의 '시니어 솔루션'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변기 안전손잡이



자세변환용구

그레이몰은 2023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틈스 과제기업으로 선정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와 보호자를 위한 큐레이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엔 자체 시니어 용품 브랜드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시니어 커머스 플랫폼 선두가 되기 위해 화이팅을 외치는 그레이몰의 미래가 기다려진다.

(그레이몰 바로가기) <https://greymall.co.kr/>



삶의 어둠과 슬픔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름의 잠수

사라 스트리스베리 (지은이), 사라 룬드베리 (그림) | 위고

어느 날, 우리 아빠였던 사람이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세상에서 오려낸 것처럼, 어느 날 아빠가 사라졌다. 사진첩에만 남아 있는 아빠. 사진 속에서 아빠는 테니스를 치고, 파티 한가운데에서 웃고 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이는 아빠가 오래 아팠고, 그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아빠를 만나러 다니던 어느 날 아빠는 말한다. 더 이상 오지 말아 달라고.

아빠를 만나기를 고대하며 찾아간 병원에서 소이는 사비나를 만난다. 사비나도 아빠처럼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사비나와 소이는 친구가 된다. 둘은 잔디밭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병원 계단을 오르내리며 소이가 아빠를 만날 때까지 함께 기다린다. 사비나 덕분에 그해 여름은 빨리 지나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언제나 다른 일이 일어났다.”

『여름의 잠수』는 소이가 어른들의 슬픔을 이해해가는 이야기인 동시에 우정에 관한 편견 없는 이야기이다. 아빠처럼 아픈 사람이었던 사비나는 그해 여름 소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 그녀를 통해 소이는 아빠의 슬픔의 깊이를 희미하게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슬플 수 있다는 것. 아빠도, 사비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여름의 잠수』는 슬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소이와 사비나가 함께하는 순간들은, 고통의 한복판, 가장 힘든 순간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여전히 함께한다는 낙관적인 시선을 품고 있다.

삶의 어둠과 슬픔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는 어린이 문학에서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여름의 잠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아빠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이는 혼자서도 계속 아빠를 찾아간다. 소이는 궁금하다. “어떻게 아빠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 내가 세상에 있는데.” 소이의 이런 질문은 아빠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다. 알 수 없는 아빠(어른들)의 슬픔을 이해해 보려는 작은 포용의 몸짓이다.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어른에게도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보려는 소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슬픔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만난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강좌 후기] 누군가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이야기하다



10월 27일(금) 별내 위스테이 동네책방에서 <공동체와 죽음이야기> 찾아가는 채비 강좌가 있었습니다. 별내 위스테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지팡이 짚고 온 할머니, 엄마품에 안겨온 아기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죽음에게 말을 걸다' 영화 상영을 함께 보고 죽음과 애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11월 2일과 9일 저녁 7시~9시 공간채비에서는 <누군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내 삶을 이야기하다> 채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와 함께 <죽음에게 말을 걸다> 다큐멘터리 영상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영상 '죽음에게 말을 걸다'는 사회적 참사로 인한 죽음, 가족을 떠난 보낸 이들이 죽음을 대면하고 치르는 애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겪은 이들이 추모와 애도보다는 자본의 입장에서 마무리되는 죽음을 목도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낄 겨를 없이 죽음을 둘러싼 분열과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영상 감상 후 어떻게 죽음을 정리하고 기억할지, 건강하게 죽음을 기억하는 방법과 존엄하고 품격 있는 마무리를 위해 우리의 삶이 나아갈 바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승욱 채비장례 추모매니저, 종교최고지도자상 수상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3 사회적경제 종교계 공동행사에서, 예장통합총회와 (사)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협력하여 개신교, 가톨릭, 불교 3대 종단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부장 전승욱 목사는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가 수여하는 상을 받았고, 이에 대한 상황과 수상자들의 업적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겨레두레의 사업 중 취약계층장례지원이나 양성평등장례, 깊이있는 애도와 추모가 있는 작은장례문화 운동에 관한 노력들이 기독교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에 부합하고, 한겨레두레의 마을장례비전은 한국교회가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선교적 사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에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이호중 조합원 부친상
남종영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박예진 조합원 시부상
김국영 조합원 부친상
윤병훈 조합원 모친상

이병학 조합원 모친상
전동선 조합원 부친상
장동현 조합원 부친상

2023년 9월

전성환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최희인 조합원 배우자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조영철 조합원 부친상
오세중 조합원 모친상
정서진 조합원 부친상

이재성 조합원 모친상
김용식 조합원 모친상
형대조 조합원 장인상

2023년 8월

우경호 조합원 빙모상
이수중 조합원 부친상
이상군 조합원 부친상
홍혜령 조합원 부친상
이현섭 조합원 부친상
신희순 조합원 사돈상
김연희 조합원 남매상
윤경화 조합원 부친상
권오숙 조합원 형부상

김소영 비조합원 시모상
지정구 조합원 빙모상
노세극 조합원 지인상
윤창훈 조합원 부친상
이서연 조합원 부친상
권영화 조합원 모친상
정정민 조합원 모친상
이옥선 조합원 부친상
심범진 조합원 부친상

박선애 조합원 부친상
신윤섭 조합원 부친상
김낙준 조합원 빙모상
김익동 조합원 모친상
김성한 조합원 부친상
임종진 조합원 배우자상
임도환 조합원 모친상
황광원 조합원 지인상
서병훈 조합원 빙부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양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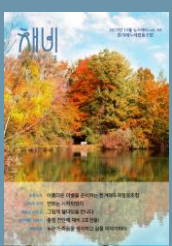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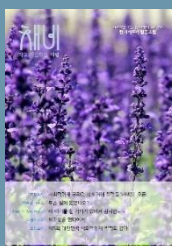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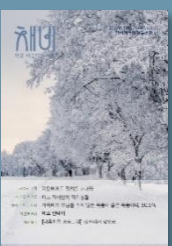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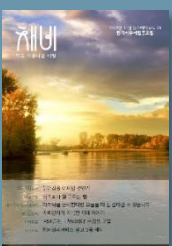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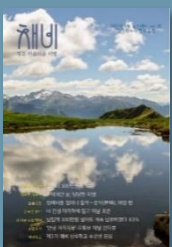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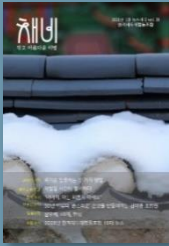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